

제9회 여성주간 기념 참여정부 보육비전 선포식 메시지

안녕하십니까?

제9회 여성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참여정부의 보육비전을 선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여성계에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성 국회의원이 두 배 이상 크게 늘었고, 보육업무도 여성부로 이관됐습니다. 청와대에 균형인사를 담당하는 비서실이 신설되고, 그 비서관을 여성이 맡고 있습니다.

과거 '남성만의 무대'로 여겨지던 분야에서도 여성의 활약이 눈부십니다. 이제 말 그대로 '여성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넘어야 할 장벽은 많습니다. 특히 보육은 여성에게 참으로 어려운 고민거리입니다. 지금도 아이나 직업이나를 두고 갈등하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해 주어야 출산율도 올라가고 경제도 성장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를 제대로 키우는 일입니다. 최적의 보육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도덕적이며, 또 미래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

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육예산 만큼은 최우선 순위로 배정해 나갈 것입니다. 구체적인 보육정책은 여성부를 중심으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여성주간이 '함께 일하고, 같이 키우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